

설 명절 선물로 진도 황금봉·레드향 어때요?

13브릭스 이상 당도가 높고 과즙 풍부해 출하 한창 소비자 직거래 등 통해 3kg·5kg·10kg 박스 포장

제철을 맞아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한 고품질의 진도 황금봉과 레드향 출하가 한창이다.
진도 황금봉과 레드향은 속이 빈틈없이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퇴비를 사용해 재배한 무농약 과일이다.
당도 13브릭스 이상, 일정 크기 이상 규격 과일만을 출하하도록 해 품질 관리에도 힘쓰고 있으며, 현재 30개 농가(6.1ha)가 재배하고 있다.
과즙과 비타민C가 풍부하고, 식감이 좋아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에서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 직거래 등을 통해 3kg, 5kg, 10kg 박스 포장으로 활발히 판매되고 있다. 올해

는 약 130t을 생산해 13억여원의 농가 소득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진도군의 대표 특산물인 황금봉과 레드향은 진도 대파보다 재배 면적당 소득이 높아 지난 2008년부터 재배가 시작됐으며, 다른 지역보다 연간 1,200여 시간 많은 일조량과 적당한 강수량, 해양성 기후를 자랑한다.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신품종 우량묘목 지원 ▲맞춤형 전문기술 컨설팅 ▲재배교육 ▲스마트팜과 무인방제시스템을 보급하는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기술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진도 황금봉과 레드향은 청정지역의 따뜻한 바닷바람, 깨끗한 물과 땅에서 생산돼 한번 맛을 보



면 깊은 맛과 향에 꼭 다시 찾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원예기술분야 시범사업 예산을 지난해 8억원에서 올해 18억원으로 증

액·편성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특화작목 중심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 ‘변화와 도약’

2023년 업무보고회 개최

장흥군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 동안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8기 균형 역점시책의 실천계획 점검과 신규사업 발굴에 무게를 두고 진행됐다. 보고회를 주재한 김성 군수는 참석 담당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균형 현안과 당면 문제점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 실천, 인구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 등 주요 분야에서 다양한 신규사업이 발굴됐다.
올해 균형 중점방향인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관련 분야의 정책발굴에도 주력했다.
발굴된 신규사업은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에 돌입한다.
추진계획이 세워지면 전남도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통해 공모사업 및 국·도비 확보에 노력할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2023년을 장흥군 변화와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첫 해”라며, “군민의 입장에서 서비스하는 행정, 혁신·발전하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완도군,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확대

관내 숙박시설·음식점·관광지·특산품 판매장 등 이용 시 지원

완도군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 업체로 완도군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관광지, 특산품 판매장 등을 이용할 경우 지원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인센

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준은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은 20명 이상으로 당일 기준 체도권은 1인당 12,000원, 섬 지역은 1인당 15,000원을 지원한다.
1박의 경우 체도권은 15,000원, 섬 지역은 18,000원이 지원되고, 2박 이상일 경우 체도권은 1인당 18,000원, 섬 지역은 21,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한 수학여행 및 학생 단체 관광객은 30명 이상으로 당일 체도권은 1인당 6,000원, 섬 지역은 1인당 8,000원이 지원되며, 1박 이상은 체도권 8,000원, 섬 지역은 10,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여행사가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여행 5일 전까지 단체 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여행 종료 후에는 10일 이내에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와 음식점, 숙박시

설 이용 확인서 및 관광지, 특산품 판매장 방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우철 군수는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이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관광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을 군 시책 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작년 대비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은 1인당 지원액이 2,000원 씩 상향되었고, 수학여행 및 학생 단체 관광객은 1인당 1,000원씩 상향됐다.
완도=기동취재본부

“해남군민 모두 군민안전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해남군은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일, 전출시 자동으로 가입, 해지되며 타보험과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총 19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단,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는 보장되지 않는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애 ▲랜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랜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애 ▲의사사고 사망 ▲스콜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후유장애 ▲가스 상해위험사망 ▲가스 상해위험후유장애 ▲감염병 사망 ▲자전거상해 사망 ▲자전거상해 후유장애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등이다.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입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지난 2017년 도입이후 지금까지 42건 3억5,400만원이 지급되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제22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입상작 발표

독창성 부분 아쉬움 많아 대상작 미선정...총 24점 입상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이 제51회 강진청자축제 기획행사로 마련된 제22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입상작을 발표했다.
고려청자박물관은 공모 주제를 “食(먹을 식)”으로 정하고 관련한 모든 청자 작품을 접수 받아 심사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부문별 전문가 5인을 위촉해 예술성, 상품성, 독창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
수상작에는 ▲최우수상 정영미 작가, 박성미 작가, ▲우수상 한세은 작가, 박병규 작가 작품이 선정됐다. 이밖에 특선은 6점, 입선 14점을

포함해 총 24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아쉽게도 대상 작품은 선정하지 못했다.
최우수상은 전라남도지사 상장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된다. 청자축제 기간(2월 23일 ~ 3월 1일) 중 축제장 주무대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심사위원장인 안병국 교수(목원대학교)는 “주제를 부여하여 심사하다보니 작품 다양성의 한계가 존재했다”며, “주제에 따른 완성도와 상품성은 전체적으로 원만하였으나 독창성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많아 대상을 선정하



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공모전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훌륭하신 작가분들

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청자 및 도예 발전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꾸준히 공모전을 개최한 강진군에 감사드린다”며 총괄 심사평을 전했다.
입상작품은 오는 2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 2층 전시실에 전시된다.
강진=김영일 기자